부산불교문인協, 제25회 실상문학상 시상식

대상 보우 스님 · 정옥금 공동수상
구랍 26일 부산일보사서 시상식



제25회 실상문학상 대상 수상자 보우 스님(왼쪽 두 번째)과 정옥금(오른쪽 두 번째).

부산불교문인협회(협회장 차정연)가 시상하는 제25회 실상문학상 대상에 보우 스님과 정옥금 시인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구랍 26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 이사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심사위원장 능지 스님, 이석래 부산문인협회장,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과 부산지역 문학계를 이끄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수상은 이석란 시인, 정정옥 시인, 작품상은 감정말 시인, 고순옥 시인, 김순옥 시인, 김현옥 수필가, 조영경 수필가 등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이석래 시인, 원력상은 양원식 시인이 수상했으며, 손순이 시인에게 감사패, 신인상은 엄순남 시인이 수상했다. 김선희 이장옥 정지우 정명희 시인, 발달장애시인 이봉우 배수진 시인도 시화전 작품상을 받았다.

운영위원회 이사장 혜총 스님 "삼계에 태어남은 오로지 마음으로 되는 것이니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에 있어도 곧 삼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악업은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을 잘 거둬 고뇌에서 벗어나자"고 법문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학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훌륭한 포교"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도 "실상문학상은 이사장 스님의 원력과 불자 문인들의 열정이 만나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오늘 시상식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문학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상을 수상한 보우 스님은 1992년 〈시세계〉로 등단하여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 〈그 산의 나라〉 〈다슬기 산을 오르네〉 〈목어는 새벽을 깨우네〉 〈화살이 꽃이 되어〉 등이 있으며, 현재 부산 감천문화마을 관음정사 주지로 있다.

정옥금 시인은 1996년 월간 〈한맥문화〉로 등단하여 부산문인협회,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산여성문학인협회 등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문학상 본상을 비롯해 낙동강 문학상, 한맥문학상, 문예시대작가상, 을숙도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대 푸른 가슴에 사다리를 세우고〉 〈깊고 뜨거운 시의 길목〉 〈할매들의 마실〉 〈사막꽃〉 등을 펴냈다.

보우 스님은 "오대보궁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2019년 1월 29일 입재한 천일기도가 어제인 12월 25일 회향했다"며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수많은 분들이 바로 생불같다. 부처님들께 축하를 받으니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옥금 시인은 "아직 문예의 깊이가 더 있어야 하지만 이런 영광을 안아 송구스럽다"며 "25년간 변함없는 원력으로 상을 주시고 계신 혜총 스님께 감사하다. 부산불교문인들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계속 진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25회 실상문학상은 대상 후보자 5명과 우수상 후보자 2명 등 치열한 경쟁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됐다. 심사위원장 능지 스님은 "회원 전원이 불심 연마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문심 개발에 온 힘을 쏟아 으뜸 문인협회로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지유 대종사 6년 만에 禪說

함허 선사 금강경 서문 주제로
구랍 27일 입재, 5일간 설법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는 구랍 27일 경내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 대종사를 모시고 '함허 득통 선사의 금강경 서문 선설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지유 스님의 득통 선사 주제 특강은 2016년 범어사 개산일 특별법문 이후 6년 만의 설법이다.

이날 지유 대종사는 마음공부의 수승한 공덕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유 대종사는 "망상 집착에 걸려 스스로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 속"이라며 "생각 여부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한다. 마음속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입재법회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 방장 지유 대종사의 법문을 듣고 〈금강경〉 속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법문에 이어 지유 대종사는 구랍 31일까지 5일간 특강을 진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이번 법석은 범어사 대중들의 수행 정진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연말연시에 방장 스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듣고 새해 정진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법회 참석이 가능했다.

한편, 이번 성도일 전후 펼쳐지는 이번 법석은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의 원융화합과 일심수행에 전념할 것을 발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함허 득통 선사'(涵虛 得通)는 나옹, 무학 스님의 법맥을 이어 조선조에서 불교를 지킨 스님이다. 배불정책에 맞서 〈현정록〉을 짓고 〈원각경소〉와 〈금강경오가해설의〉 등을 지어, 어려운 시기 불맥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특강의 주제인 '금강경 서문'은 송나라 때 편찬된 〈금가경오가해〉를 대조해 교정하여 서문을 붙인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의 서문 부분으로 조선조 배불정책에 대응한 불교의 구심점을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꼽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법회 봉행

한 달 동안 화엄법문 등 이어져
前 전계사 혜남 스님 회향 법문
원동중 드림야구단에 500만 원



통도사(주지 현문)는 구랍 22일 경내 설법전에서 '임인년 화엄산림 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30여 명에 이르는 제방 원로 대덕 스님들이 통도사를 찾아 각 품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하루 두 차례 화엄 법문을 이어갔다.

회향법회에는 영축총림 前 전계사 혜남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관욕과 상단불공, 축원, 혜남 스님의 회향법문, 전달식, 인사말, 시식 후 동참 위패 봉송의식으로 화엄산림의 모든 일정을 회향했다.

혜남 스님은 "사람은 누구나 말과 행동과 몸짓과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재 7시로서,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보시라고 하는 것이 꼭 재물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깨어나 얼마든지 베풂과 나눔으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과 정진의 길을 가시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옛 어른스님들께서 어린 저에게 복을 짓는 방법은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길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한 달간 법사스님들께서 많은 법문을 해주셨지만 간단한 이 두 마디를 실천에 옮긴다면 추운 겨울 한 달간 다닌 것에 대한 위로가 될 것이다"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서 현문 스님은 원동중 드림야구부에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원동중 야구부는 2011년 창단해 2013, 2014년도 대통령배 전국야구대회 우승, 202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을 거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야구를 통해 지역을 빛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서 송석중 언양요양병원원장에게 통도사 자비원 이사로서 자비원의 발전과 입소자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참위패 봉송의식후 현문 스님은 "오늘 같은 날씨를 청량한 날씨라고 한다. 이 청량한 날씨는 우리 마음 자체도 청량하고 영가님들도 청량해져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셨을 것"이라며 "화엄산림 법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불연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사상구불교聯, 회장 이 · 취임식

성림 스님 신임 회장에 취임
사상구청에 이웃돕기 물품전달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구랍 26일 르네상스호텔 5층에서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前 회장 성문 스님과 신임회장 성림 스님, 보운 스님(부산불교연합회회장), 장제원 사상구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의장, 심인택 사상구연합회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행사는 심인택 신도회장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장학금수여 △이웃돕기물품전달 △이임사 △임명장수여 △회기전달 △골로패 수여 △취임사 △임명장수여 △치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성문 스님은 이임사에서 "회장이라는 중한 소임을 맡은 지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회장소임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제방의 원로 대덕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취임하시는 성림 스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스님들께서는 부처님의 정법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림 스님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난 6년 동안 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신 집행부스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행력도 부족한 저에게 회장소임을 주신 것은 젊은 사고로 연합회를 화합하고 불법 홍포와 보현행을 실천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문화공연활동으로 불교문화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공연문화를 승화시켜 사상구민과 불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불국토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운 스님은 "사상구연합회는 매년 연말연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경로잔치와 장학금전달 등 자비행을 실천하신 성문 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 취임하시는 성림 스님께서도 이 행보를 이어받아 사상구연합회가 더욱 발전하고 역량 있는 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력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고 치사했다.

이어 사상구연합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상구청에 라면 100박스와 김 70박스를 전달했다. 그리고 사상구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구청, 동사무소, 봉사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된 37명의 학생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사상구연합회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약 3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 군장병 위문 등 모범적인 지역불교연합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불정사, 누림주간보호센터 개원

구랍 18일 준공 및 개원식 봉행
건축면적 176.14㎡ 총 4층 규모
일상생활 힘든 어르신 생활지원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구랍 18일 경내 법당에서 누림주간보호센터 준공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기능회복, 일상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누림주간보호센터는 연면적 428.16㎡ 건축면적 176.14㎡ 규모로 총 4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과 2층에는 누림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및 생활실이 있으며, 공양실과 어르신의 휴게공간이 있다. 3층은 오피스텔로 활용되며 4층은 누림주간보호센터 직원 휴게실 및 창고이다.

이날 행사에는 고담 스님(천불정사 회주), 법경 스님(천불정사 주지), 조민호 누림주간보호센터장, 경선 스님(前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춘광 스님(천태종광명사 주지), 설운 스님(태고종원로회 차석부회장), 김재윤 금정구청장, 백종헌 금정구국회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의장, 이정민 천불정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민 신도회장의 고불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환영사 △자비의 쌀 전달 △임명장수여 △센터장인사말 △치사 △격려사 △축사 △승보공양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고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천불정사는 오랜 세월 지장도량으로서 효를 으뜸으로 여기고 수행해 왔기에 오늘에 이르러 더 큰 신심과 원력을 세워 이웃 어르신들을 나의 어버이 같이 잘 모시고자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여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비록 시작은 작지만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전 직원, 천불정사 자원봉사 신도님들 모두가 합심해서 매일 매일 지복을 누리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천불정사의 (사)고담정토문화원은 금정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과 자비쌀 1000kg을 전달하고 조민호 법사를 누림주간보호센터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고담 스님의 불교발전을 위한 노력과 자비실천행을 치하하며 누림주간보호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경선 스님의 치사, 춘광 스님, 설운 스님의 격려사와 백종헌 금정구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종환 금정구의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경선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남 문도회, 보신 스님(천명사주지) 등 많은 개인과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현장에서 전달하며 누림주간보호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락서암, 제4회 락서암장학금 전달식

장학금 총 1000만 원 전달



청소년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락서암(주지 수월)이 구랍 27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제4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락서암은 대학생 6명에게 각 100만 원, 고등학생 6명에게 각 50만 원, 중학생 4명에게 각 30만 원,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월 스님은 "육바라밀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게 인욕바라밀이다. 놀고 싶고 마음대로하고 싶고 돈 쓰고 싶고 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그 순간만 참고 견디면 다 성취할 수 있다"며 "학생이면 놀고 싶은 마음 견디며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힘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보배가 되시라"며 인사를 전했다.

진파 스님은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계신 수월 스님은 복을 짓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다"라며 "이렇게 복 짓게 해준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훌륭한 인재기 될 거다"고 학생들에게 법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 제25대 종무원장

영범 스님 취임법회 봉행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이하 대경교구)는 구랍 17일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제25대 종무원장 영범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24대 종무원장 법운 스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각급 기관장과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경교구 종무원장 이취임식은 총무국장 법안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전 종무원장 이임사, 공로패 및 화환 전달, 신임 종무원장 약력 소개, 임명장 및 직인 전달, 표창장 수여, 신임 종무원장 취임사 및 직원 소개, 이웃돕기 성금전달,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공지사항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종무원장 영범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난 시절 우리 교구는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 원로의장, 중앙종회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명문 교구였다"면서 "우리 교구의 전통과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종무행정을 통해 종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 내는 데, 소승과 우리 소임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영천 죽림사 '다문화글로벌 송년축제' 개최

다문화 인식변화 · 지역민간 교류



영천 죽림사(주지 선지)는 국제희망가족다문화정책연구원(이사장 청향지)과 함께 구랍 23일 죽림사 경내 무대에서 '다문화글로벌 송년축제'를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주민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다 함께 만드는 글로벌세상 아름답게 꾸미자'라는 주제로 제1부 식전행사, 국민의례, 이태원참사 다문화 이주민가족 추모, 대회사 및 환영사, 축하공연, 제2부 표창장 전달과 기념촬영으로 진행됐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김상훈 국회의원, 황교완 前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문화글로벌 송년축제는 2019년 제1회 대구경북송년글로벌축제로 시작해 2020년 서울 글로벌축제에 이어 이번에 영천에서 개최하게 됐다.

주관사인 국제희망가족다문화정책연구원은 한국어능력시험 지도와 이주민 여성한국귀화를 도와주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 · 역사 · 법률 강의 및 다문화가족 2세대 교육, 다문화가족 남편 교육, 다문화가족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